

## 부록 2

# 사진으로 보는 초창기

- ▶ '그때 이 숲 속에서 있었던 일을/김순의 붓으로 진실을 먹물로 하여/천년돌비에 써서 새겼노니.' KDI와 KIST가 한 정문을 사용하면서 진입로는 중간에서 나뉜다. 거기서 더러는 헤멜 수도 있기에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든 자연석을 어렵사리 구하여 돌비 형식으로 명칭 글씨를 새겨 새웠다. 글씨는 세종대 교수이던 서예가 평보 서희환 씨가 썼는데, KDI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 돌비는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기와 인사한다. (111쪽 참조)
- ▼ 1971년 4월 14일, KDI는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건물 기공식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경제개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체계적 연구를 당부했다. (104쪽 참조)



- ▶ 연구원 건물 건축 부지를 둘러보는 김영준 감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만제 원장(가운데), 그리고 김철주 사무국장(왼쪽에서 네 번째). (99쪽 이하참조)



- ◀ 1971년 4월 22일, 동구릉으로 가족 동반 소풍을 간 직원들. 설립 초기의 고된 업무와 거기 따른 긴장감을 이들이 이 하루의 소풍으로 다 풀 수 있었을까. 차근차근 조직을 갖추어 가기 위한 작업에는 화합이라는 밑그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 ◀ 1971년 4월 21일, 서소문동 소재 동화빌딩 14층에서 열린 제 1차 이사회.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고려대학교 성창환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의결했다. (53쪽 참조)

- ▶ 개관기념 제1차 국제 심포지엄이 1972년 7월 5, 6일 양일간에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는 KDI의 12명의 수석연구원과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어마 아델만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수 참석했다. 수석연구원들에게는 외국에서 유치된 지 1년 동안의 연구업적을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했다.



# 번영을향한경제설계

한국개발연구원 지평역 200기  
1972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



▲ 지하1층, 지상3층(전면은 2층)의 연건평 1천 6백 50평. 홍릉의 본관 건물의 완공으로 1972년 6월 4일, 1년여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KDI는 이사를 했다. 이사한 지 한 달 만인 7월 4일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 참석하에 개관식을 가졌는데, 이날 아쉽게도 연구원 설립의 산파역을 맡았던 김학렬 부총리(◀)는 그해 연초 지병으로 타계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개관식 이전 공사 현장을 두 차례나 방문하는 열의를 보였었다. 본관 사진 위의 글씨는 박 대통령의 기념 휘호.(103쪽 이하 참조)



## 71년도부터 4년간 유치한 수석연구원들의 면모

1971년부터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일부 두뇌들과 함께 주로 외국에 있던 두뇌들이 속속 귀국하여  
 짜임새 있는 연구진용을 갖추고 KDI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 갔다. 75년도 이후 유치  
 된 박사들은 이쉽게도 유인물로 남아 있는 당시의 사진이 없어 여기 실지 못했다.



구본호 박사



김광석 박사



김대영 박사



김수곤 박사



김영봉 박사



김완순 박사



김윤형 박사



김적교 박사



남우현 박사



문관용 박사



박종기 박사



사공일 박사



서석태 박사



송병락 박사



송희연 박사



이규식 박사



이학용 박사



주학중 박사



홍원탁 박사

▶ 오랜 외국 유학으로 국내 실정에 다소 어두웠던 수석연구원들에게 산업현장과 농촌 실정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체감하도록 했다. 이러한 현장 실습을 통해 박사들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명실상부한 정책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포항제철 공장의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등 도약의 발판이 놓여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농촌 현실은 외국에서 돌아온 박사들에게 조국의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 본관 신축공사를 맡았던 보성산업(주) 한민석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김만제 원장: (1972년 7월 19일)



▼ 개성과 학문적 자긍심이 강한 두뇌집단과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체질의 엘리트 관료집단 간의 융화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터. 이러한 두 집단의 융합은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일의 효과성과 연관되기에 매우 중요했다.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KDI 박사들은 연례적으로 축구시합을 가지는 한편 상호 근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현 KDI 강봉균 원장(앞열 좌로부터 일곱 번째)은 당시 경제기획원의 촉망받던 엘리트 관료였던바 훗날 KDI와 인연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상호 교류와 무관치는 않으리라. (320쪽 이하 참조)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몬 쿠즈네츠(위 오른쪽), 데이빗 롤·드와이드 퍼킨스·마리노 보니아노·알버트 카이텔·어마 아델만 박사 등을 비롯한 하버드·예일·윌리엄소·스탠포드·옥스퍼드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의 교수 28명이 KDI와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수시로 방한하여 수주간씩 머물며 수석연구원들과 공동 연구를 했다. 이러한 교류는 KDI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79년 4월 17일 당시 신현확 부총리(사진 가운데)는 '경기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은, 한 달 보름 전인 3월 2일 KDI가 '80년대의 전략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두 사람의 KDI 수석연구원이 보름 동안 비밀리에 구체안을 작성한 결과 나온 것이다.



◀ 1975년 6월 12일 제2차 경제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러한 협의회의 기능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견인차적 역할을 했다. 사진 왼쪽의 발언하는 이는 강경식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보.

- ▶ 김만제 원장은 1973년 4월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대회에서 국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비록 박 대통령이 원장에게 수여한 훈장이지만, 그것은 국가가 KDI에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KDI는 1971년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이미 국가경제발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로를 남겼고, 앞으로 더욱 그러하리라.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KDI의 전·현직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훈장으로 빛날 것이다.



- ▶ 향후 15년의 청사진을 담아 『장기 경제·사회 발전』(1977~91년)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 예측이 담겼다. 부정적 시각의 사람들은 이를 두고 허황된 장밋빛 잠꼬대라고 빈정댔다. 그러나 그 예측은 훗날 거의가 적중하거나 상회하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그것은 KDI의 연구진이 개발한 장기예측모형의 정확성 때문이었다. 1978년 4월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보고서 내용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이기준 KDI 이사장(일어선 이).



- ▼ 서설이 내린 어느 날 KDI의 주축들이 후원에서 담소를 나누다 한 장의 사진을 남겼다. 이제 KDI는 국내외적으로 그 존재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